

『영미연구』

제56집 (2022): 51-76

<http://doi.org/10.25093/ibas.2022.56.51>

타잔의 “하얀 피부”: 에드거 라이스 버로우스의 『유인원 타잔』에 나타난 의심스러운 백인성

백 준 걸

단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초록]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중문화 아이콘 타잔은 에드거 라이스 버로우스의 소설 『유인원 타잔』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유토피아적 갱생의 신화와 남성적 육체의 매혹은 타잔의 식을 줄 모르는 인기에 큰 몫을 차지한다. 이와는 달리 학문적 비평의 대상으로서 타잔은 영웅적 제국주의, 폭력적 인종주의, 백인적 배타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해석되어왔다. 그런데 이처럼 타잔이 백인임을 전제하는 기존 비평과 달리, 본 논문은 『유인원 타잔』을 읽으면서 타잔의 백인성이 모호하고 문제적임을 강조한다. 타잔의 정체성은 인간인지 동물인지 아니면 둘 사이의 잡종 교배인지 처음부터 분명하지 않았고 소설이 끝날 때까지 확정되지 않는다. 게다가 타잔을 바라보는 백인들의 관점에서 그는 문자 구사 능력을 갖춘 문명인과 언어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원시인으로 분열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정체성의 혼란은 타잔이 실상 순수 백인이 아니라 흑인들과 어울려 지내는 가짜 백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리고 타잔이 백인이기는 하지만 문명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부적격 백인일 수도 있다는 의심에서 절정에 도달한다. 결국 타잔은 제인에게 청혼하지만 거절당하고 아프리카 원시 밀림으로 되돌아가기를 선택

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타잔의 “하얀 피부”가 백인임을 입증하는 확실한 표식이 될 수 없으며, 그가 백인성의 테두리 바깥에 있다가 백인성의 핵심 깊숙이 진입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지만 실패하고야 마는 인물임을 주장한다.

주제어: 에드거 라이스 버로우스, 타잔, 백인성, 흑인성, 야만성

I

1912년 원작자 에드거 라이스 버로우스(Edgar Rice Burroughs, 1875-1950)가 『유인원 타잔』(*Tarzan of the Apes*)을 『올스토리 매거진』(*All-Story Magazine*)에 전재한 이후(Porges 156), 타잔은 전 지구적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첫 작품이 공전의 대 히트를 기록하자 버로우스는 곧바로 후속작 『타잔의 귀환』(*The Return of the Tarzan*, 1913), 『타잔의 짐승들』(*The Beasts of Tarzan*, 1914), 『타잔의 아들』(*The Son of Tarzan*, 1914)을 연달아 출간한다. 죽기 전까지 그가 쏟아낸 타잔 소설은 총 28권에 달한다(Porges 796). 식을 줄 모르는 인기 탓에 버로우스가 사라졌어도 신화는 계속되었다. 원작자를 대신할 새로운 작가들이 등장했고 새로운 에피소드가 쏟아져 나왔다. 1960년대 중반 출판된 모든 대중 소설 30권 가운데 한 권은 타잔 소설이었다(Torgovnick 42). 밀림의 왕자 타잔의 인기는 그야말로 선풍적이었다. 타잔의 신화는 비단 소설에 그치지 않았다.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었다. 1918년 무성영화 『유인원 타잔』(*Tarzan of the Apes*)을 필두로 1999년에 이르기까지 대략 88편에 가까운 영화가 제작되었다(Bady 312).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는 데이비드 예이츠(David Yates) 감독의 『타잔의 전설』(*The Legend of Tarzan*, 2016)이다.

100년 넘게 지속된 타잔의 매혹이 무엇인지 쉽게 단순화하여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지의 대륙 아프리카에 대한 이국적 선망, 낯설고 위험천만한 아프리카 오지에

서 만끽하는 모험의 스텝, 비문명의 공간에서 문명 과잉의 때를 벗고 원시적 인간으로 회귀함으로써 누리는 낭만적 경쟁의 대리만족 등이 타잔의 인기의 큰 몫을 차지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W.S. 반 다이크(W.S. Van Dyke) 감독의 영화 『타잔 유인원 인간』(*Tarzan the Ape Man*, 1932)에서 유래했다고(“Tarzan Yell”) 전해지는 그 유명한 타잔의 외침은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 흉내 냈을 법하거나와 요들송을 닮은 타잔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우리는 상상 속 아프리카 정글 탐험을 떠나곤 한다. 고어 비달(Gore Vidal)이 주장하듯이 타잔의 밀림은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더 나은 유토피아적 대안으로 존재한다. 아프리카 밀림은 꿈과 낭만의 세계,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억압 사회의 금지와 타부에서 벗어나서 얻을 수 있는 에덴의 동산”(Vidal 22)이다.

또 다른 매혹은 타잔의 벗은 알몸이 환기하는 강건한 남성성이다(Kasson 157-218). 지금이야 남자의 알몸은 상시적으로 소비되는 탈근대의 탐닉 대상이다. 할리우드 영화로 따져도 실베스터 스탤론(Sylvester Stallone)이라든지 아널드 슈워제네거(Arnold Schwarzenegger)를 비롯한 수많은 배우들이 남성적 육체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지만, 그 이전만 해도 희고 매끈하게 잘 빠진 근육질의 남성 육체는 흔치 않은 시각적 구경거리였다. 타잔 소설의 표지들에는 의례 육체미가 돋보이는 백인 남성들이 그려졌으며, 최초의 타잔 영화 주인공 엘모 링컨(Elmo Lincoln)에서부터 타잔 영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자니 웨이스물러(Johnny Weissmuller)에 이르기까지 타잔의 거칠고 단련된 날것의 육체는 더욱 빛을 발했다. 특히 웨이스물러의 섹스 어필(Wicherink 93)은 타잔의 인기의 가장 결정적이었다. 요컨대 타잔은 육체적 남성성을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은 최초의 근대적 영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등장하는 대부분의 슈퍼 히어로들도 어쩌면 타잔에게 빚진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입은 듯 만 듯 얇고 꼭 낀 옷 사이로 적나라하게 노출된 슈퍼맨의 근육, 이와는 약간 다르게 두껍고 딱딱한 복장을 통해 과장스럽게 연출된 배트맨의 근육이야말로 미국의 초영웅들이 타잔으로부터 이어받은 빛나는 유산일 것이다.

그런데 도피적 낭만주의와 육체적 매혹의 이면에는 아름답지 못한 또 다른 타잔의 모습이 도사리고 있다. 타잔을 “꿈의 자아”(22), 즉 독자가 꿈꾸는 이상적 자아를 형상

화한다는 비달의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이상적 자아에는 폭력과 정복의 음험한 유혹이 뒤섞여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찌 보면 타잔에 열광한 전 세계의 독자들은 그가 밀림의 왕자로서 또는 흑인 원주민을 다스리는 지배자로서 군림하는 모습에 자신을 대입해보면서, 폭력과 정복의 대리만족을 은근히 즐겼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타잔을 읽고 소비하는 전 세계 독자 대중들은 제국주의의 암묵적인 동조자라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물론, 이후 상연된 타잔의 영화들에서는 제국주의의 혐의를 벗은 반식민주의자로서의 타잔이 등장하기도 한다(Bady 314). 그러나 적어도 『유인원 타잔』에 드러난 타잔은 노골적으로 폭력적이고 제국주의적이다. 에릭 셰이피츠(Eric Cheyfitz)는 『유인원 타잔』이 출간되었던 시기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타잔의 앵글로색슨 영웅주의와 루스벨트식 제국주의의 접합점을 포착함으로써, 타잔의 모험 이야기에 질게 드리운 제국주의의 어두운 그늘을 밝혀낸다(3-21). 최근에 출간된 아론 베이디(Aaron Bady)의 논문은 타잔을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의 선조이자 비행 능력을 소유한 최초의 슈퍼히어로로 읽는다(306). 베이디는 비행(flying)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찰하면서 이를 다시 비행기와 같은 문명 기술을 이용한 제국주의적 폭력의 역사에 연결한다(305-29). 베이디에 따르면, 비범한 비행 능력을 발휘하여 나무와 나무 사이로 날아다니다가 부지불식간에 위로부터 흑인들을 공격하고 목 졸라 살해하는 타잔의 모습은 비행기를 비롯한 월등한 기술문명을 통해 식민지를 점령 지배한 서양 국가의 모습과 교묘하게 중첩한다(321-22).

『유인원 타잔』의 또 다른 어두운 모습은 배타적인 백인우월주의자로서의 타잔이다. 백인 중심주의에 중점을 둔 연구들은 주로 아프리카 밀림이라는 장소적 배경에 주목하기보다는 미국 국내의 인종차별적 상황에 빚대어 타잔을 설명한다. 먼저 게일 비더만(Gail Bederman)은 타잔이 울가미를 이용하여 흑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짐 크로우(Jim Crow) 시대 미국 남부에서 횡행했던 린칭(lynching)에 연결한다(223-26). 흑인 살해를 통하여 백인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타잔은 남부 백인들의 추악한 모습을 반영한다. 캐서린 주르카

(Catherine Jurca)는 슬립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20세기 초 미국 도시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오두막을 지키려는 타잔이 백인적 배타주의를 실현하려는 백인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주장한다(20-43; 21). 주르카에 따르면, 밀림에 침입한 아프리카 흑인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깊은 밀림으로 도피하는 타잔의 무리는, 도심으로 몰려드는 흑인들과 이민자들을 피해 도시 외곽지역으로 도피해서 배타적인 인종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백인들의 모습을 알레고리적으로 재현한다(35).

지금까지 살펴본바 낭만적 갱생 또는 대안적 세계에 대한 갈망, 근육질의 육체적 남성성, 영웅적 제국주의, 폭력적 인종주의와 백인적 배타주의에 관한 연구는 나름대로 풍성한 학술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지만, 타잔의 백인으로서의 인종적 정체성이 애초부터 이미 결정된 것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지 않고 바뀔 수도 없는 고착된 정체성이라는 암묵적 전제로부터 출발한다는 공통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물론 일반 대중의 시각에서 타잔의 백인적 인종 정체성은 자명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유입된 타잔의 영상물들은 한국의 어린아이들에게 백인이 소유했을 법한 육체적 매력에 대한 환상적 고정관념을 심어주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유인원 타잔』에서도 타잔이 원래 영국 귀족 그레이스토크(Greystoke) 가문의 자손에다 타잔이라는 이름 자체가 유인원의 언어로 “하얀 피부”(White-Skin, Burroughs 36)¹⁾를 뜻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의 백인적 정체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는, 타잔이 백인임이 확실하고 백인 공동체의 일원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면 왜 그가 마지막 부분에서 제인과 결합하지 못하고 백인 사회로 진입하지 못했는가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본 논문은 『유인원 타잔』을 읽으면서 타잔이 백인을 대표하는 남성성의 전형이자 제국주의적 인종주의적 관점을 여과 없이 대변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백인 공동체에 속하려고 하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백인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문제적 인물로 보고자 한다.²⁾

II

우리가 아는 타잔은 아프리카 정글에서 제인과 함께 사는 것으로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다. 적어도 침팬지 치타(Cheetah)가 없으면 허전한 불박이가 된 것처럼, 제인이 없는 타잔의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타잔이 처음 등장하는 『유인원 타잔』에서 버로우스가 애초에 의도한 바는 제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었다. 독자 들의 빗발치는 아우성 때문에 제인이 아프리카 정글로 돌아가 타잔과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후속작이 나왔지만, 타잔은 본래 고독한 단독자이자 제인에게 거절당하는 불행한 인물이다. 타잔은 제인을 만나기 위해 아프리카 정글을 떠나 서구 문명을 배운다. 그리고 마침내 위스콘신에 찾아와 청혼하지만 거절당한다. 그렇다면 왜 버로우스는 타잔과 제인의 결혼을 애초에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일까? 왜 제인은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잔의 청혼을 거절한 것일까? 본 논문은 타잔의 결혼 실패를 타잔이 백인 주류 사회에 진입하지는 못한 것으로 해석하고, 그 이유를 타잔의 백인성이 모호하고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읽고자 한다.

물론 『유인원 타잔』에서 타잔이 자신을 백인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타잔이 자신을 흑인을 살해하는 사람으로 규정할 때 그의 백인적 정체성은 극명하게 부각된다. 타잔은 자신의 대리모인 유인원 칼라(Kala)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직후 복수를 위해 정글에 들어간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타잔은 칼라를 살해한 아프리카 흑인 부족민 쿨롱가(Kulonga)를 발견한다. 자신과 너무도 비슷하게 생긴 한 인간을 처음 만난 타잔의 반응은 “경이로움”(76)과 호기심 어린 관심이었다. 그러나 곧 타잔은 쿨롱가가 “형태는 너무나 닮았지만 얼굴과 피부색이 너무도 다른”(76) 존재라는 판단을 내린다. 타잔이 발견한 것은 인간이었지만 그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쿨롱가는 도저히 같은 인간적 속성을 소유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매끈하고 추한 흑색의 것”(76)이었다.

같은 인간이면서도 피부색과 생김새가 다른 “추한”(76) 존재로서의 흑인에게서 타잔은 유대감이나 동질감보다는 적대감을 느낀다. 물론 이 적대감은 쿨롱가가 칼라를

죽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타잔은 다른 흑인 부족민들을 볼 때도 동료애를 느끼기보다는 혐오해야 할 이유를 찾는다. 가령 흑인 부족들이 고문과 식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삼는 것을 보고 타잔은 그들이 “유인원들보다 더 사악하고 사보르(Sabor, 사자 암컷)만큼 야만적이고 잔인”(90)하다고 간주한다. 그래서 그는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낮게 평가”(90)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처럼 타잔은 흑인성과 비인간성을 동일시하고 이를 핑계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흑인 부족민들을 살해한다. 그런데 그러한 살인의 총동은 문명사회 속에서도 지속된다. 가령 타잔은 “정글 속에 있을 때는 흑인들을 죽여도 되는데 왜 여기서는 죽이면 안 되는지 모르겠다”(240)고 말한다. 버로우스는 타잔이 흑인들을 죽이는 데에는 다양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옹호하지만, 장소와 이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흑인을 죽여도 좋다는 타잔의 발언을 감안하면 타잔의 흑인 살해는 거의 본능적이다.

이와 같은 타잔의 흑인 살해는 비단만이 지적하듯이 흑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린칭(lynching)이 횡행하던 짐 크로우 시대의 남부를 소환한다(223-25).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남부의 백인들은 흑인들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밧줄을 이용한 교살은 빈번히 이용되던 방법이였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한다면, 『유인원 타잔』에서 타잔이 흑인과 백인 간의 관계를 적대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은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남부의 백인들이 흑인들을 집단적으로 살해함으로써 백인의 순수성을 더욱 공고하게 하려고 하였듯이, 타잔은 다양한 이유로 흑인을 살해함으로써 비로소 백인이 되고 백인의 인종적 순수성을 확립하려 한다. 흑인 살해는 타잔이 백인임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증거이다.

그런데 이처럼 이견의 여지 없이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타잔의 정체성은 사실 알고 보면 매우 불안정하다. 『유인원 타잔』은 타잔이 인간인지 동물인지, 백인인지 그렇지 않은지, 백인이라면 얼마만큼 순수한 백인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한다. 우선 먼저 어렸을 때부터 타잔은 정체성의 혼란을 첨예하게 겪으면서 자란 인물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의 문제는 늘 고민이고 괴로움

이었다. 가령 타잔은 유인원 무리로부터 “그들 중 하나”라는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다르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매우 “특이한 위치”를 차지한다(57). 이 다름은 그의 정체성을 상당히 불완전한 것으로 만든다. 원래 타잔의 하얀 피부는 긍정의 요소라기보다는 배제와 배척의 징표였다. 그 스스로에게도 자기혐오의 원천이었다. 타잔은 모든 유인원을 능가하는 “우월한 머리”로 그들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해내지만 반대로 “힘과 크기”에 있어서는 크게 “부족”하다(38). 열 살이 되면서 친구들과의 차이를 깨닫는다. 특히 “그의 작은 몸”은 그에게 “강렬한 수치의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39). 특히 우연히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타잔은 큰 충격에 빠진다. “커다란 입술과 강력한 송곳니”를 가진 다른 유인원들과는 달리 “조그맣게 찢어진 그의 입”과 “작디작은 하얀 치아”는 그에게 열등한 존재임을 보여준다(39). 타잔은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하얀색은 “공허”하고 “끔찍한” 것이며, “뱀조차도 그러한 흉측스러운 눈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자신을 비하한다(40).

그런데 타잔은 프랑스 장교 다르노(D'Amot)를 만나 인간 문명을 배우면서 다른 시각을 갖게 된다. 인간이라는 열등한 정체성은 갑자기 이전과 달리 우월함의 징표로 탈바꿈한다. 동물보다 인간의 신체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하는 타잔에게 다르노는 “큰 도시들”과 “거대한 건축물들”을 거론하면서 인간의 “정신”과 “이성”이 동물의 “근육”보다 더욱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한다(237). 타잔 또한 칼라를 포함하여 유인원들이 일반적으로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없다”(237)며 다르노의 주장에 동의한다. 이처럼 타잔은 다르노의 가르침을 통해 동물들이 즉각적인 생물학적 요구를 충족하는 데 급급한 단순하고 원시적인 존재임을 배운다. 반대로 인간은 미래를 미리 준비할 만큼 철저하고 계획적인 사유가 가능하므로 동물보다 더 훌륭하다는 점을 깨닫는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타잔의 마음 한쪽 편에는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 유인원의 자식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일렁인다. 출생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타잔은 자신을 길러 준 유인원 칼라가 친어머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타잔의 아버지가 털이 없는 “하얀 유인원”(238)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므로 타잔은 결론적으로 자신이 유인원과 인간의 결합이 낳은 잡종일 수도 있다고 걱정한다. 물론 그 당시로는 최신 과학 기

술이었던 지문(fingerprinting) 기술을 통해 타잔은 인간임을 확실히 알게 되지만(276), 적어도 그전까지는 자신이 생물학적 혼종이자 돌연변이라는 의구심은 오래도록 지속된다.

이와 같은 정체성의 혼란은 타잔 스스로 느끼는 것이지만, 타인들이 바라보는 타잔의 정체성은 더욱더 양가적이며 모호하다. 우선 제인의 아버지 포터 박사(Dr. Porter)와 그 일행이 인식하는 타잔의 정체성은 두 가지로 분열되어 있다. 첫 번째 타잔은 포터 일행이 머무는 오두막 주인으로서의 타잔이다. 오두막 앞에 세워진 팻말에는 영어로 “이곳은 짐승과 흑인의 살해자 타잔의 집이다. 타잔의 소유물을 건드리지 마라, 타잔이 보고 있다. 유인원 타잔”(115)이라고 쓰여있다. 포터 일행의 관점에서 오두막을 지어 제법 그럴듯하게 문명 생활을 한다는 것, 글을 쓸 줄 안다는 것, 사유재산의 개념을 가졌다는 것은 타잔이 명백하게 문명화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두 번째 타잔은 탐험대 앞에 홀연히 나타나 위험에 빠진 백인들을 구하는 숲의 수호신으로서의 타잔이다. 포터 일행은 자신들을 끊임없이 구해주는 타잔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이 수호신이 첫 번째 타잔과 동일 인물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이 두 번째 타잔은 인간의 언어를 소리로서 발화하지 못하므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알 수 없는 “깹깹 소리”(jabber, 135)만이 두 번째 타잔이 유일하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이다.

이 두 타잔이 서로 다른 존재로 인식된다는 것은 제인이 자신의 친구에게 쓴 편지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제인은 첫 번째 타잔을 “이상한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두 번째 타잔에 대해서는 “경이로운 피조물”, 신과 같은 백인, “육체를 떠난 영혼”이라고 묘사한다(164). 여기서 “이웃”(164)은 이 첫 번째 타잔이 눈앞에 나타난 적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이지만, 분명 그녀하고 비슷하면서 친근한, 그래서 나중에 만나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문명화된 유럽인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암시한다. 따라서 제인은 이 첫 번째 타잔이 특이하다고 여기기는 하되 두 번째 타잔과 달리 경이롭거나 신비롭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두 번째 타잔은 명확하게 백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 오히려 첫 번째 타잔보다 더 친근할 것 같지만, 제인에게는 “신과 같

은” 능력을 소유한 “경이로운 피조물”(164)로 보통의 인간보다는 더 멀게 느껴진다. 제인이 그에게 경이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두 번째 타잔이 “야생 코끼리의 힘과 원숭이의 민첩함과 사자의 용맹”(164)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그는 보통의 인간이 가질 수 없고 오로지 동물만이 가질 수 있는 초인적인 신체적 능력을 발휘한다. 이처럼 제인의 편지에서 드러나는 타잔의 두 가지 정체성은 글을 쓰면서도 말을 할 줄 모르고, 문명적이면서 야생적이라는 그의 지울 수 없는 이중성과 양가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III

그런데 이 지점에서 더욱 흥미로운 것은, 문자 구사 능력을 갖춘 친근한 문명인으로서 타잔과 언어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초인적 원시인으로서의 타잔이라는 분열된 정체성에 더하여 또 다른 이중성이 부가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 이중성은 두 번째 타잔과 관련되어 있다. 프랑스 함선의 원정대가 포터 일행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곧 아프리카 부족의 공격을 받은 데다, 원정대의 지휘관 다르노는 부족민들에게 포로로 잡히는 신세가 된다. 포터 일행은 계속해서 다르노를 찾지만 발견하지 못한다. 같은 시기에 두 번째 타잔 역시 정글 속으로 사라진 상태다. 이때 영국 귀족 세실 클레이턴(Cecil Clayton)을 비롯한 일행은 두 번째 타잔이 과연 백인들에게 우호적이기만 한 존재인지 의심한다. 타잔의 실제 사촌이자(물론 이는 나중에 밝혀지는 것으로 타잔은 다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다) 제인을 사이에 두고 그와 애정 경쟁을 벌이는 클레이턴은 이 두 번째 타잔이 과연 적절한 의미에서 같은 편으로 볼 수 있는지, 타잔이 혹시 탐험대를 공격한 흑인들과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 제인에게 되묻는다. 제인은 클레이턴의 추측에 불쾌감을 느낀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타잔이 백인임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신사”(gentleman, 205)임을 강하게 주장하지만, 클레이턴은 이렇게 반박한다:

“포터 양, 그는 이상하고, 절반은 야만적인 정글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
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타잔은 유럽어를 말할 줄도 이해할 줄도 모릅니다. 게
다가 타잔의 장식물이나 무기들도 아프리카 서해안에 사는 야만인의 것입니다.”

클레이턴은 빠르게 말하고 있었다.

“포터 양, 여기서 백마일 반경에는 야만인 이외에 다른 인간들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타잔은 우리를 공격한 부족의 일원이거나, 또는 그와 비슷하
게 야만적인 부족의 일원일 겁니다. 아마도 식인종일 수도 있지요.” (205)

타잔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는 제인과 포터 일행에게 클레이턴의 주장은 타잔
의 정체성을 지극히 의심스러운 것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제인은 “타잔이 손으로 음
식을 먹고, 짐승처럼 손으로 찢어먹고, 기름 묻은 손을 허벅지에 쓱 닦는 것”(206)을
기억해내면서, 타잔의 야만성에 대한 클레이턴의 부정적인 추정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다. 결국 제인은 클레이턴의 끈질긴 주장에 설득당해 다른 것은 몰라도 “타잔이
야만 부족의 입양된 일원”이며 “야만인 아내” 사이에 낳은 “혼혈 자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상상에 도달한다(230).

이 지점에서 클레이턴이 타잔에게 부여한 야만성의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
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유인원 타잔』에서 야만성(savagery)과 동물성을 구
별하는 마이클 룬드블래드(Michael Lundblad)의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자(139-56). 룬
드블래드에 따르면 버로우스는 잔인하고 야비한 고문을 즐길 뿐만 아니라 식인까지
마다하지 않는 음봉간(Mbongan) 흑인 부족에게 야만성을 부여하는 반면, 유인원처럼
자랐어도 ‘야만적’인 흑인 부족과는 전혀 다르게 고문이나 식인과 같은 잔인한 행위를
삼가고 야생의 포식자처럼 살생을 하더라도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타잔에게는 동물
성을 부여한다(140, 153). 룬드블래드의 구별이 맞는다면, 버로우스가 규정하는 야만
성은 필연적으로 비인간성을 내포한다. 반대로 타잔의 동물성은 그가 비록 밀림에서
동물과도 같은 야생적인 삶을 살더라도 인간 이하의 잔인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점
을 암묵적으로 입증한다. 즉 타잔에게 부여된 동물성은 그가 문자 그대로 동물이라는
뜻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남성성을 갖춘 인종적으로 우월한 백인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Lundblad 140). 룬드블래드가 암시하듯이 만약 버로우스가 야만성을 백인성으로부터 떼어놓으려 한다면, 그 의도는 비교적 명확하다. 버로우스는 지나치게 문명화된 백인 남성들이 원시적 환경으로 돌아가 그동안 망각했던 원시적 남성성을 재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타잔이 그러하듯이 야생동물로부터 인간에게는 걸쭉된 야생적 동물성을 습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시성—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과 야만성을 구별하고 오랫동안 원시성에 연결되어왔던 흑인성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버로우스의 입장에서는 야만성을 흑인의 속성으로 치부할 수 있다면, 원시성으로의 회귀가 행어나 백인이 ‘야만적인’ 흑인처럼 되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되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룬드블래드의 분석은 바로 그러한 버로우스의 인종주의적 의도를 정확하게 포착했다는 점에서 매우 탁월하다.

그런데 타잔이 흑인과 더불어 사는 야만인이라는 클레이틴의 추측은 타잔에게서 야만성을 떼어냄으로써 그의 야생적 남성성과 인종적 우월성을 부각하려는 버로우스의 명시적 의도를 사실상 무너뜨린다. 클레이틴의 시각은 순수한 원시성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타잔이 알고 보면 원시성과 동물성의 순진무구한 표면 아래 야만성과 흑인성을 감추고 있는 음험한 존재임을 강하게 시사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클레이틴이 암시하는바 두 번째 타잔에게 부여되는 백인성과 야만성의 중첩은 그에 앞서 설명한 타잔의 분열된 정체성보다 훨씬 더 치명적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상 타잔이 가진, 겉으로 보이는 백인성을 실질적으로 해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두 번째 타잔의 백인성은 그가 가진 야만성과 흑인 부족과의 강한 연관성에 의해 심각하게 문제시된다.

클레이틴이 보기에 타잔은 겉모습만 백인이다. 백인이라는 타잔의 표피적 정체성 아래에 흑인적 정체성이 숨어 있다면, 겉모양만으로는 표면 아래 잠복한 흑인성을 포착하기 힘들기 때문에, 타잔의 이중성은 더욱더 기만적이고 위협적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이중성은 다분히 혼혈(miscegenation)과 패싱(passing)에 대한 당시 미국인들

의 공포와 혐오를 상기시킨다. 특히 표면과 심층이 표리부동을 이루는 타잔의 기만적 이중성은, 겉모양은 유서 깊은 버지니아 귀족 가문의 상속자로서 가장 순수한 앵글로 색슨 혈통을 이어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흑인 노예의 아들로서 도둑질을 일삼고 존속 살인까지 저지르는, 마크 트웨인의 『바보 윌슨』(*Pudd'nhead Wilson*, 1894)에 등장하는 악당 톰 드리스콜(Tom Driscoll)을 연상시킨다. 트웨인이 제시하는 톰은 단지 32분의 1만 흑인의 피를 갖고 있어 백인으로 간주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당시 남부의 법률과 관습은 아주 적은 양이라도 흑인의 피가 섞이면 흑인으로 판정하는 한 방울의 법칙(one drop rule)에 따라 톰을 흑인으로 간주한다. 이처럼 피와 혈통에 대한 당대의 편집증적 집착에 비추어 보면, 트웨인의 톰이 앞으로는 말끔한 귀족 행세를 하면서도 뒤로는 공동체 전체를 혼란과 위협에 빠뜨리듯이, 정글의 타잔은 도움을 아끼지 않는 백인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흑인 부족들과 어울리면서 식인을 일삼고 야만성을 드러내므로 문명인이었던 첫 번째 타잔과는 달리 매우 위험한 종류의 이중적 백인성을 지닌 셈이다. 『바보 윌슨』에 나오는 표현으로 정의하자면, 이 두 번째 타잔은 일종의 “모방 백인”(imitation white, Twain 45)이다. 그와 같은 시각에서 타잔은 겉으로는 백인의 흉내를 내고는 있지만 사실 흑인 부족민들과 뒤섞여 혼혈하고 은밀히 작당하여 백인 일행을 위협하는 음흉한 가짜 백인이다.

IV

물론 이처럼 다차원적이고 중층적으로 구성된 타잔의 정체성은 작품의 말미에서 마침내 해소가 되고, 제인은 흑인들과 한통속인 밀림의 야만인으로서의 타잔이 아니라 다르노의 도움을 통해 완벽한 문명인으로 재탄생한 프랑스 신사로서의 타잔과 재회한다. 그러나 제인은 수만 리 먼 길도 마다치 않고 미국의 위스콘신까지 달려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결혼하기 위해 자기 삶의 터전인 밀림을 버리고 기꺼이 문명화된 신사로 변모한 타잔의 모습에 기뻐하기보다는 심각한 고민에 봉착한다.

곁에 있는 이 이상한 피조물에 대해 그녀는 무엇을 알고 있다? 그는 그 자신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있다? 그는 누구인가? 그의 부모는 누구인가?

타잔이라는 그의 이름 자체가 알 수 없는 그의 근본, 그의 야만적 삶을 나타낸다.

게다가 타잔은 성도 없지 않은가. 그녀가 이 정글의 부랑자와 행복할 수 있을까? 아프리카 야생지의 나무 꼭대기에서 삶을 보낸 남편, 광포한 유인원들과 사방을 뛰어다니며 짹짹일을 일삼고, 몸을 떨면서 죽은 동물의 옆구리를 떼어먹고, 튼튼한 치아로 날 것 그대로의 생살을 물어뜯고, 친구들이 으르렁대며 자기네 몫을 놓고 싸움을 걸어도 자기 먹을 것을 떼어가는 사람과 무슨 공통점이라도 과연 있을까?

그는 그녀가 속한 사회적 영역까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그녀는 그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와 같은 끔찍한 잘못된 결합을 한다면 둘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266).

여기에서 제인이 타잔에 대해 고민하면서 염두에 둔 바람직한 남성상은 부모의 유무, 성(姓)의 유무와 같은 좀 더 깊은 차원에서의 사회문화적 전통에 바탕을 둔다. 가령, 성이 있다는 것은 깊은 의미에서 뿌리와 역사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의 유무는 타잔을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존재, 따라서 결혼 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핵심적 요소이다. 반대로 성이 없고 이름만 있다는 것은 근본이 없고 계보가 없으며 사회적으로 용인받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글에 있었을 당시에는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였던 야생적인 타잔의 모습은 문명화된 공간에서는 오히려 매우 위험하고 심지어 혐오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제인은 야생동물들이 득시글거리는 아프리카 정글이 아니라 그녀와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문명인들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야 하므로, 타잔이 가진 야생성은 문명을 위협하는 매우 의심스러운 특성으로 변모한다. 타잔이 그녀에게 드려온 “매혹이라는 마법”은 모험과 쓰릴이 넘치는 정글에서나 먹히는 것이었지 지금 이곳 “무미건조한 위스콘신”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274).

기존의 비평가들은 20세기 초에 들불처럼 번져나간 원시(the primitive)의 담론에 힘입어 타잔의 신화가 구축된 것으로 본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원시로 회귀하여 소설

된 남성성을 복구하려는 강렬한 욕구가 타잔의 신화를 만들었다는 논리다. 예를 들면, 비더만의 타잔의 신화는 원시적 시원으로 되돌아가 과잉 문명의 때를 벗으려는 백인들의 강한 열망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222). 비더만의 주장은 역사적으로도 확인된다. 비문명의 강력한 옹호자였던 미국의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조금 전의 논의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듯이 원시성이 매우 긍정적으로 여겨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제인이 상상하는 원시적이고 동물적인 타잔의 모습은 문명사회의 규범적 테두리 내에서는 매우 어색하고 부적절해 보인다.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당시 미국인들이 찬양해 마지않던 원시성 속에 내재한 양가성이다. 즉 원시적인 것은 문명 과잉의 치료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문명사회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징표로 작용한다. 원시성은 백인을 더욱 강인한 인종으로 만들어주는 한편 순수한 백인성으로의 진입을 차단하는 배척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약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문명인은 원시인이 될 수 있고 원시의 세례를 통해서 활력을 얻지만, 거꾸로 원시인은 절대로 문명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타잔의 백인성이 모호한 채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타잔이 원래 소유한 원시성과 비문명성 때문이다. 즉 타잔이 아무리 동물이 아니라 인간임을 증명한다 해도, 흑인들과 뒤섞여 어울리는 야만인이 아니라 원시적 남성성을 가진 존재임을 입증한다 해도, 타잔의 백인성에 달린 의문 부호는 여전히 삭제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타잔의 이름을 다시 음미할 필요가 있다. 타잔이라는 이름은 유인원의 언어로 “하얀 피부”(36)라는 뜻이다. 앞부분에서 설명하였듯이 하얀 피부는 처음에 유인원의 관점에서 타잔의 열등한 신체적 발달을 증명하는 징표였지만 인간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표식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제인과 백인 사회의 관점에서 타잔의 이름과 그것이 의미하는 하얀 피부는 가장 폭넓게 정의되었을 때의 백인성을 의미할 뿐이지,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백인 공동체에 통합되고 동화될 수 있는 핵심적 백인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얀 피부의 타잔은 말 그대로 피상적이고 표피적 의미에서의 백인성을 소유한 것이다. 가시적으로 피부가 하얗다는 것을 빼고 타잔의 모든 것은 불확실성의 영역에 속하며, 그에 따라 그의 인종적 사회적 좌표는 근거에서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실 광범위하고 느슨하게 적용되는 백인성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만 미국의 핵심을 구성하는 순수 백인성의 자격에는 미달하는 문제적 백인성을 소유한 것으로 여겨진 것은 다름 아닌 유럽의 이민자들이었다. 특히 19세기 후반부터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고 동유럽 등지에서 건너온 수많은 가난한 이민자들은 같은 백인이라도 폭력성과 범죄성을 드러내는 열등한 백인들로 폄하되어 멸시와 혐오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다. 미국의 순수성을 보호하려는 토착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이민자 집단은 폐허지처럼 몰려드는 “바람직하지 못한”(Jacobson 39-41) 백인들이다. 그래서 이민자들에게는 언제나 깡패 불량배 부랑자 범죄자의 딱지가 붙는 일이 다반사였다. 『바보 윌슨』을 다시 소환하여 설명하자면, 이처럼 이민자들에게 부과되는 백인성과 범죄성의 중첩은 이탈리아 쌍둥이 루이기(Luigi)와 안젤로(Angelo)에 의해 증명된다. 쌍둥이는 이탈리아 귀족 출신으로 도슨스 랜딩(Dawson's Landing) 마을 사람들에게 추앙받지만 살인의 누명을 쓰고 나서는 암살자로 오인당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귀족의 가면을 쓴 뒷골목 이발사” 그리고 “신사로 위장한 땅콩 행상인”으로 조롱받으며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한다(Twain 105). 그들이 귀족으로 여겨질 때는 순수 백인성을 부여받았지만, 암살자로 의심받고 난 후에는 주류 백인 사회에 통합되어서는 안 되는 계급적으로 열등한 이민자, 백인이지만 백인답지 못한 불순하고 저급한 백인으로 취급받는다.

이처럼 『바보 윌슨』의 이탈리아 쌍둥이에게 부과되는 이중성은 고스란히 타잔에게도 적용된다. 즉 실제 영국 귀족 그레이스토크 가문의 실질적 후계자로 순수 백인 혈통을 받았지만, 야생 유인원으로 손에 자라 동물성을 후천적으로 획득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타잔의 이중성을 만들어낸다. 게다가 영어 회화가 서툴러 제인 일행에게 프랑스어로 말하는 타잔의 모습(268)은 영락없이 외국인 이민자로 보인다. 특히 제인을 돈으로 매수하여 약혼자로 삼으려 하는 악당 캔러(Canler)를 죽이려 할 때, 타잔은 살인자로 오해받는 『바보 윌슨』의 이탈리아 쌍둥이들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범죄성을 드러내는 불량한 외국인 이민자처럼 보인다(271). 숲의 수호신 역할을 담당하면

서 온갖 기적을 행하는 타잔의 장점들은 문명의 공간에서는 사회 적응이 불가능한 표식으로 둔갑한다. “짐승과 흑인의 살해자”(115)로서 제인과 그 일행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짐승들과 아프리카 흑인 부족을 물리칠 때의 타잔은 제인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밀림의 제왕이다. 그런데 밀림의 공간에서는 살생을 통해서만 삶이 지속 가능한 것으로 유지되므로 살생은 생존의 필수 수단이지만, 문명사회에서 살해는 극악한 범죄일 뿐이다. 언제라도 살인을 자행할 수 있는 폭력적인 타잔을 보고서 제인이 “두려움”(274)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타잔이 두려움과 공포감을 안겨주는 위험한 이민자라면, “두려움을 느끼는데 사랑할 수 있을까”(274)라며 의심하는 제인의 망설임은 정당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타잔이 살상도 마다치 않는 그의 잔인함으로 인해 백인 문명사회에 동화될 수 없다면, 타잔은 불가피하게 제인의 “사회적 영역으로까지 상승”(266)하는데 실패할 것이다. 반대로 문명사회에서 나고 자란 제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타잔이 속한 원시적 사회로까지 “하강”(266)하는 데에도 많은 장애가 따른다. 타잔의 ‘상승’과 제인의 ‘하강’은 둘 다 모험적이다. 백인 문명사회로의 진입과 적응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의 잔인함 때문에 타잔의 ‘상승’은 모험적이다. 반대로 제인에게 선택으로 주어진 원시로의 ‘하강’은 원시성과 동물성으로의 퇴행이기 때문에 모험적이다. 타잔과 제인이 속한 사회는 서로 공약 불가능하고 소통 불가능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타잔과 제인의 결합은 “잘못된 결합”(misalliance, 266)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과거 타잔을 “경이로운 피조물”(164)로 높이 평가했던 제인이 이제 와서는 그를 의구심과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상한 피조물”(strange creature, 266)로 간주하고, 한때 인간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던 타잔이 갑자기 자조적으로 자기 자신을 “유인원”(266)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버지가 부재하고 유인원 어머니 칼라의 슬하에서 자란 야생의 “부랑아”(266)가 바로 타잔의 정체성이다. 또는 클레이턴이 지적한 것처럼 타잔은 “단지 정글의 짐승”(206)일지도 모른다. 또는 인간과 유인원의 비정상적 결합의 낯은 혼종까지는 아닐지라도, 삶의 대부분을 정글에서 보냈으므로 뺏속 깊이 유인원일지도 모른다. 타잔의 시작은 ‘하얀 피부’였지

만 타잔의 결말은 ‘유인원’이다. 타잔의 시작은 ‘하얀 피부’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타잔의 결말은 정글의 유인원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유인원 타잔』의 마지막 문장들은 이와 같은 타잔의 정체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나는 정글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유인원이고, 당연히 그녀는 나에게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없었지요. 나는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습니다”(277). 『유인원 타잔』의 전반에 걸쳐서 타잔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찾기 위해 탐색하다가 작품이 끝나는 무렵에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 그러나 타잔은 과학적으로 입증받은 영국 귀족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유인원의 아들로서의 후천적 정체성을 택하면서 아프리카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다. 이로써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앵글로색슨 귀족이라는 태생적 정체성은 타잔 자신에 의해 거부되고 배척된다.

작품 전체에 걸쳐 독자는 유인원이 되지 못해서 콤플렉스를 느끼기도 하지만 동물들보다 월등한 이성의 힘을 가진 인간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타잔, 스스로를 인간으로 인식하면서도 흑시 인간과 동물의 잡종 교배가 아닐까 의구심을 품는 타잔, 친근한 문명인과 초인적 원시인으로 분열된 타잔, 귀족 가문의 상속자이자 앵글로 색슨족의 후예이지만 끊임없이 흑인들과의 연관성을 의심받으며 그의 백인성이 문제시되는 타잔, 하얀 피부를 지녔지만 백인 사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부적격자로 낙인찍히는 타잔 등 모순적이고 상호배반적인 타잔의 정체성들과 마주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타잔의 모호하고 분열된 정체성은 결국 타잔이 그토록 원했던 제인을 결혼상대자로서 맞아들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타잔의 ‘하얀 피부’는 큰 테두리에서 그가 백인임을 입증하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불확실한 그의 정체성은 주류 사회의 순수 백인성을 획득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V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볼 때, 흑인의 존재가 백인을 백인으로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을 주장한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타잔의 경우 흑인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살해함으로써 자신의 백인성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나, 중국에 가서 타잔의 백인성은 여전히 승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인성의 존립이 모리슨의 주장처럼 흑인성에 의해서만 뒷받침되고 완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흑인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곧 ‘백인이다’라는 명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어쩌면 타잔의 비극은 흑인이 아니면 모두 백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순진한 믿음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른다. 타잔은 애초부터 배타적인 백인 인종 집단에 이미 소속된 핵심 구성원이 아니라 백인과의 동질성을 끊임없이 증명함으로써 백인성의 바깥 테두리에서부터 백인성의 핵심부로 이동하려 하지만 끝내 미국의 주류 백인들로부터 배척받는 인물이다. 비유하자면 백인성은 여러 개의 동심원이 한데 모여있는 원들의 집합을 닮아있다. 가장 가운데를 차지하는 작고 핵심적인 원이 순수 백인성이라면 타잔은 그 동심원의 핵심으로 진입하려다 쫓겨난 셈이다. 결만 하얀 타잔에게 그 작은 원은 출입 금지의 성역이다.

모리슨에 따르면 흑인의 존재(Africanist presence)를 통하여 “미국적 자아는 스스로를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혐오스러운 자가 아니라 바람직한 자로, 힘없는 자가 아니라 자격과 권력을 가진 자로, 역사 없는 자가 아니라 오랜 역사를 지닌 자로,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죄 없는 자로, 진화의 맹목적 우연이 아니라 운명의 진보적 완성으로”(62) 인식한다. 여기에서 “미국적 자아”가 인종과 관계없는 보편적 미국인이 아니라는 점을 유추하기는 어렵지 않다. 모리슨 자신도 명확하게 밝히듯이 “미국인은 백인”(58)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미국 문학의 비평적 준거 틀로서 막강한 권위를 행사했던 모리슨의 이론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백인성을 동일하고 동질적인 것으로 만드는 단점을 드러낸다. 모리슨의 주장대로 흑인을 배척하고 소외하고 흔적을 지움으로써 백인적 정체성이 얻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흑인성과의 대비를 통해 확보된 백인의 인종적 동질성은 사실상 허구적 구성물이자 쉽게 허물어지는 취약한 구조물이다. 인종은 모리슨의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모순적인 문

화적 편견과 경험적 증거들의 축적물일지도 모른다. 역사학자 매슈 프라이 제이콥슨(Matthew Frye Jacobson)의 주장대로 백인성은 단 하나의 거대한 돌로 만들어진 “거상”(monolith, 41)이 아니다. 백인성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체제이다. 흑인성에 비추어 백인성은 완전무결한 것으로 보이지만, 백인성에는 다양한 층위가 존재한다. 백인성은 흑인성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층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백인성은 다양한 담론들이 직조하는 복합적 구성물이다.

피터 브룩스(Peter Brooks)에 따르면, 20세기 초에 이르러 타자들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그에 따른 근대의 의명성 문제가 첨예화하면서 정체성의 문제가 중요해지고, 문학의 영역에서 정체성 내러티브가 급증한다(5). 브룩스가 인종적 정체성을 핵심 논제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인종과 관련된 정체성의 문제 또한 이 시기에 많이 회자한다. 미국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흑백 혼혈과 이민자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백인의 인종적 정체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경우에 누가 백인이고 백인이 아닌가는 민감하면서도 해결책을 쉽게 찾기 힘든 난제가 되어 버린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정체성 인증의 방법으로서 시각적 가시성에 의문을 던지고 백인의 인종적 순수성을 더욱 명징하게 판별할 방법을 강박적으로 탐색한다.

『유인원 타잔』은 당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그러하듯 정체성의 순결성에 대해 결벽증적으로 집착한다. 타잔의 정체성이 의심받은 것은 바로 그러한 당시의 강박과 결벽증에 기인한다. 결론적으로 타잔의 하얀 피부가 완벽한 의미에서 백인성을 획득하지 못한 주원인은 동물과 인간의 속성을 둘 다 지닌 타잔의 생물학적 혼종성, 문명인인지 야만인인지 가늠하기 힘든 문화적 이중성, 흑인인지 백인인지 불분명한 인종적 모호성, 순수 백인인지 불순한 백인인지 파악할 수 없는 불분명한 백인성이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유전적으로 확정된 것처럼 보이는 타잔의 정체성은 그의 삶의 궤적을 따라 살펴보면 불명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타잔을 백인의 대표로 간주하는 비평적 분석은 근본에서부터 재고되어야 한다. 타잔은 백인성의 테두리 바깥에 머물러 있다가 백인성의 안쪽 깊숙이 진입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고야 마는 인물로 보아야 한다. 타잔의 ‘하얀 피부’는 백인임을 입증하는 확실한 표식이 아니다. 그

의 ‘하얀 피부’는 흑인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표도 아니고 백인들이 확실한 자기 편으로 확증할 수 있는 기준도 아니다. 놀랍게도, 『유인원 타잔』에서 타잔이라는 이름의 원래 속뜻이 ‘하얀 피부’임을 아는 등장인물은 없다. 그들이 타잔의 이름을 부를 때 기의(signified)로서의 ‘하얀 피부’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기의로부터 아무 상관도 없이 표류하는, 공허한 기표(signifier)로서의 타잔만이 메아리친다.

Notes

- 1) 이후부터는 페이지 번호만 표기하기로 한다.
- 2) 여기에서 『유인원 타잔』 속에 두드러지게 드러난 타잔의 모습과 이후 등장한 소설, 영화, 텔레비전을 통해 구축된 타잔의 모습을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 100여 년 동안 타잔의 이미지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로 인해 다양한 타잔의 모습들이 등장했고 서로 상충하기도 한다. 타잔이 혼성적 존재, 중간자적 존재로서 세간의 시선을 끈 인물이라는 주장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인 『유인원 타잔』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유인원 타잔』을 직접 읽어본 독자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용문헌

- Bady, Aaron. "Tarzan's White Flights: Terrorism and Fantasy before and after the Airplane." *American Literature*, vol. 83, no. 2, 2011, pp. 305-29.
- Bederman, Gail. *Manliness and Civilization: A Cultural History of Gender and Race in the United States, 1880-1917*. U of Chicago P, 1995.
- Brooks, Peter. *Enigmas of Identity*. Princeton UP, 2011.
- Burroughs, Edgar Rice. *Tarzan of the Apes*. Penguin, 1990.
- Cheyfitz, Eric. *The Poetics of Imperialism: Translation and Colonization from The Tempest to Tarzan*. U of Pennsylvania P, 1991.
- Jacobson, Matthew Frye. *Whiteness of a Different Color: European Immigrants and the Alchemy of Race*. Harvard UP, 1998.
- Jurca, Catherine. *White Diaspora: The Suburb and the Twentieth-Century American Novel*. Princeton UP, 2001.
- Kasson, John F. *Houdini, Tarzan, and the Perfect Man: The White Male Body and the Challenge of Modernity in America*. Hill and Wang, 2001.
- Lundblad, Michael. *The Birth of a Jungle: Animality in Progressive-Era U.S. Literature and Culture*. Oxford UP, 2013.
- Morrison, Toni. *Playing in the Dark: Whiteness and the Literary Imagination*. Vintage, 1993.
- Porges, Irwin. *Edgar Rice Burroughs: The Man Who Created Tarzan*. Brigham Young UP, 1975.
- "Tarzan Yell."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Wikimedia Foundation, Oct 6 2022, 16:41pm, en.wikipedia.org/wiki/Tarzan_yell. Accessed 22 Aug. 2022.
- Torgovnick, Marianna. *Gone Primitive: Savage Intellectuals, Modern Lives*. U of Chicago P, 1990.

Twain, Mark. *Pudd'nhead Wilson and Other Tales*. Oxford UP, 2009.

Vidal, Gore. *Selected Essays of Gore Vidal*. Doubleday, 2008.

Wicherink, Bram. “Tarzan! The Untamed Image of the Perfect Savage.” *Etnofoor*,
vol. 22, no. 2, 2010, pp. 90-97.

Abstract

Tarzan's "White Skin": Questionable Whiteness in Edgar Rice Burroughs's *Tarzan of the Apes*

Joongul Paek
Ewha Womans University

Tarzan, one of the most widely known cultural icons, came into being in Edgar Rice Burroughs's *Tarzan of the Apes*. Since then, critics have read him variously as embodying heroic imperialism, violent racism, or white exclusionism. Unlike those critics who assume that Tarzan is undoubtedly white, however, this essay claims that Tarzan's whiteness is problematic at best. Tarzan's identity is ambiguous from the outset. Whether Tarzan is human or animal, whether he is a hybridized product of both, is not determined until the end. From other whites' perspective, moreover, Tarzan is also divided between a civilized man able to read and write and a primitive superman unable to communicate in human language. Such ambiguity of identity culminates in the doubts that Tarzan might be a fake white who, living among savage Africans, would betray his own race, and that he might also be an undesirable and unassimilable white in the civilized society. Ultimately, I claim, the questionable whiteness of Tarzan's "white skin" frustrates all his sedulous attempts to be integrated into core whiteness.

Key Words: Edgar Rice Burroughs, Tarzan, whiteness, blackness, savagery

논문접수일: 2022.09.25

심사완료일: 2022.10.10

게재확정일: 2022.10.17

이름: 백준걸

소속: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부 부교수

이메일: jgpack@ewha.ac.kr

